선운사 새해 출가체험 템플스테이 마련

내년 1월 6박7일 일정

강학과 수선의 도량 고창 선운사(주지 경우)가 새해부터 출가체험 템플스테이를 운영한다.

선운사는 새해 1월부터 6박7일 일정으로 내 삶의 진정한 가치를 찾는 과정의 하나인 출가체험 템플스테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선운사 출가체험은 불교에 대한 어려움을 덜고 사찰의 일상생활을 체험해봄으로써 한국불교의 전통문화와 수행정신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고, 종교를 떠나 바쁜 현대인들에게 정신적 안식처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출가체험 템플스테이 참가자들은 예불, 좌선, 1080배, 금강경 독송, 법문청취, 특강 등의 프로그램을 체험하게 된다. 체험기간 동안 매일 발우공양으로 점심식사를 하게 되며 오후 불식도 체험한다.

선운사 연수국 담당자는 "출가체험 템플스테이를 통해 인생의 전환점이 될 계기를 마련하고자 한다. 종교를 떠나 사찰공동체 생활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고, 어려운 불교를 이해할 수 있는 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출가체험 템플스테이를 기획하게 됐다"고 밝혔다.

출가체험 기간은 2018년 1월 6일(토요일)부터 12일(금요일)까지며 참가비는 성인 50만원, 고등학생 40만원으로 책정됐다.

한편, 선운사는 11월부터 재가불자들을 위한 철야참선법회를 운영하고 있다. 매주 금요일 지장보궁에서 진행되는 철야참선법회는 기획국장 대선 스님의 지도로 오후 8시부터 이어진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연광 스님, 광주불교연합회장 연임

회장단 · 감사 등 구성
우수활동자 시상식도



광주불교를 이끌고 있는 증심사 주지 연광 스님〈사진〉이 광주불교연합회장에 연임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11월 6일 광주불교회관 2층 법당에서 제5차 정기총회를 열고, 단독으로 출마한 연광 스님의 제3대 회장 당선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 총회는 이어 수석부회장에 보응 스님(세심정사 주지)과 명신 스님(지산동 연화사 주지)을, 감사에 인성 스님(행정감사, 관음암 주지)과 지원 스님(제정감사, 주월동 연화사 주지)을 선출했다.

연광 스님은 당선 인사를 통해 "종단을 떠나 일불제자로서 승가의 화합을 위해 정진하겠다"고 취임소감을 말했다. 이어 스님은 "많은 사찰과 단체의 노력 덕분에 광주불교가 전국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앞으로 더욱 낮은 자세로 광주와 호남불교가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다짐의 말을 전했다.

연광 스님은 광주불교연합회의 역할에 대해서도 "향후 불교회관 건립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 불교회관을 통해 광주지역 불자들의 힘을 모아 지역불교가 지역사회에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반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행사서는 1년간 광주지역 우수활동자에 대한 시상도 이어졌다. 부설기관인 빛고을나눔나무의 발전에 기여한 도계스님(소원정사 주지)을 비롯해 광주지역 봉축행사인 빛고을관등회 기여한 임형칠 정광고교장, 김달중 광주운전자불자회장, 윤혜숙 사진문화반 강사, 강민엽 사진문화반 대표, 장현덕 봉축행사 율동리더, 민은희 불자 등이 감사패를 받았다. 또 부설단체인 광주불교산우회 김등수 회장, 김인석 산행팀장에 대한 시상식도 진행됐다.

광주불교연합회는 이날 '2017활동보고서'와 '2017빛고을관등회 자료집'을 발간하고, 1년간 광주불교연합회의 다양한 활동을 소개했다.

활동보고서에는 '불교사업' '문화사업' '나눔사업' '특별위원회 및 산하단체활동' '대외협력사업' 등 다양한 활동 내용이 담겼다. 빛고을관등회 자료집은 지난 3~10월까지 진행된 봉축행사 활동에 대한 사진과 해설을 함께 담았다.

행사는 1년간 광주불교연합회의 활동 사진 영상 상영을 시작으로 향림사 합창단 축하공연과 불교의례, 시상식, 인사말과 총회 순으로 진행됐다. 아울러 결산과 예산안도 통과됐다.

한편 광주불교연합회는 내년 봉축행사 준비를 위해 봉축기획단 회의를 개최하며, 12월 독거노인 겨울 연탄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전북지역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 개최

전북지역의 남원, 무주, 이리, 전북, 화엄불교대학 등 5개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가 11월 4일 전주교육대학 체육관에서 열렸다.〈사진〉 전북지역 불교대학 학인들의 소통과 지역불교 발전을 기원하며 열린 이번 한마음체육대회는 각 불교대학 재학생과 동문 500여 명이 동참했다.

이날 한마음체육대회에 참가한 각 불교대학인들은 배구, 단체줄넘기, 2인3각 달리기, 터치 볼 등의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화합을 다졌다. 올해 대회서는 전북, 이리, 화엄불교대학이 공동 우승했다.

전북사암승가회장 성우 스님(금산사 주지)은 대회사를 통해 "전북지역의 불교대학 한마음체육대회는 청명한 가을하늘에 아름다운 그림을 그리는 것과 같다"며 "부처님의 자비심이 우리의 본분사가 되는 날이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진성 스님 "아이들 웃음꽃 되찾도록 앞장"

아동센터 후원금 300만원 쾌척



태고종 전북종무원장 진성 스님(진안 마이산 탑사 주지)이 지역아동센터 어린이들의 건강한 신체발달과 정신 함양을 돕기 위해 나섰다.

진성 스님은 11월 6일 지역아동센터를 위한 후원금 300만원을 덕진구청에 전달했다.〈사진〉 이날 진성 스님과 전북종무원 총무국장 송운 스님, 마이산 탑사 탑 밴드 봉사단원들이 함께했다.

이 자리서 진성 스님은 "올바른 사랑은 사람을 성장시킨다"며 "어린이들이 건강한 웃음을 되찾고 사회의 일원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보살필 계획"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또 "어린이들이 지나친 온라인게임 몰입과 스마트폰 중독에서 벗어나 건전한 게임을 통해 바르게 성장하기 바라는 마음에서 후원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덕진구청은 후원금으로 사랑의 울타리 자원봉사단을 통해 지역 아동의 꿈을 키워주기 위한 스포츠 스태킹 대회를 추진할 예정이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전북영산작법보존회가 무형문화재 주간을 맞아 열린 전주시 행사에서 장엄한 영산작법을 연출하고 있다.

무형문화재 주간 빛낸 전북영산작법

전북영산작법보존회, 불교 전통문화 알려

전라북도 무형문화재 제18호 전북영산작법보존회(회장 혜정)가 2017년 무형문화재 시연 발표회를 개최했다.

전주시의 무형문화재 주간을 맞아 10월 28일 전주 국립무형유산원 대공연장에서 열린 이번 시연회는 부회장 혜안스님, 교육원장 지산 스님, 총무 정수 스님, 도인사 도정 스님 등 30여 명의 전수자와 이수자스님들이 동참했다.

시연회는 불교 전통의식에 따라 신중작법, 복청게, 천수바라, 헌좌게, 다게작법, 기성가지, 사홍서원 순으로 정중하면서도 엄숙하게 진행돼 수많은 관람객들의 호평을 받았다. 연과 일로왕 번을 비롯한 각종 번으로 장엄된 시연회에는 불교 전통소리인 어산과 작법이라 불리는 착복과 함께 태징, 요령, 목탁, 소북, 해납, 나각, 나팔, 박 등 불교의 전통악기가 어우러져 영산회상을 재연했다.

전북에서 유일하게 무형문화재로 지정된 영산작법보존회 공연은 일반인들에게는 생소한 불교의 전통예술과 의식을 다양한 계층에 선보였다는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특히 10바라와 10착복은 웅장한 장면이 연출될 때마다 관람객들로부터 큰 환호와 갈채를 받았다.

혜정 스님은 "많은 불교의 전통문화 중에서도 무형문화재인 영산작법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호평을 받아왔다"며 "불교의 맥을 이어 불교전통문화를 적극적으로 알리는 노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말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공군 호국 의상암 군 장병 위문법회

공군 8351부대 호국 의상암(지도법사 여산 김윤봉)이 부대 장병들을 위한 위문법회를 봉행했다. 11월 9일 부안군 실내체육관에서 열린 이번 법회는 박용수 대대장을 비롯한 군장병들과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 부대 관계자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밸리댄스팀이 흥겨운 무대를 연출했으며 장병들은 족구 등 게임과 레크리에이션을 즐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사진〉

행사를 주관한 김윤봉 법사는 "항상 부처님께서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 함께하고 있다는 생각으로 군 복무에 임해달라"며 "건강하고 행복한 군생활을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내소사 포교국장 혜공 스님은 "군생활에서 쌓인 스트레스를 날려버리고 즐겁고 행복한 하루를 즐기길 바란다"고 격려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도서지역 불교 미래 다진 백일장

장보고아카데미, 완도 신흥사서 청소년 초청

도서지역 청소년들을 위한 불교 백일장 대회가 열렸다.

완도 신흥사(주지 법공)가 운영하는 (사)장보고아카데미는 11월 1일 신흥사에서 '장보고대사 추모 제11회 장보고 청소년 백일장대회'를 개최했다. 장보고대사 탄생 1176주년을 맞아 개최된 이 행사는 완도를 포함한 도서지역 유일의 청소년 불교 백일장 대회다.

전남도와 전남교육청, 완도군, 완도교육지원청 등이 후원한 백일장 대회는 초등부 · 중등부 · 고등부 학생 3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낙엽' '나' '낮잠'을 시제로 운문(시), 산문, 그리기 등 세 분야로 나눠 진행됐다.

이날 수상자로는 운문(시) 부문 전라남도지사상 박윤진(완도수산고 1) 양, 산문부문 전라남도교육감상 이다선(완도여자중 3) 양, 전라남도의회의장상 김란화(완도중앙초 1) 양이 선정됐다.

경연에 앞서 법공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가을날 절 집안을 찾아주신 학생과 학부모님들에게 감사드린다. 맑은 가을 날씨만큼이나 아름다운 그림과 글을 그려주길 바란다"고 환영인사를 전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탈종공고

- 사찰명 : 공덕암
- 주 지 : 동파(이영규)
- 소재지 : 경남 밀양시 삼랑진읍 화성길 27
- 신청인 : 김영순

위 사찰 공덕암과 주지 동파(이영규)는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한국불교태고종 총무원장 법하

탈종공고

- 사찰명 : 덕양사
- 주 지 : 무애(김영재)
- 소재지 : 경기도 여주시 금사면 하호리 50번지

위 사찰과 위 인은
귀 종단의 종지종풍이 맞지않아
이에 탈종함을 공고합니다.

2017년 11월 15일

대한불교관음종 총무원장 법하